

독도의 진실-7

- 일본과 울릉도&독도 -

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편

1. 일본은 울릉도를 죽도(竹島, 다케시마)로 불렀다

일본은 11세기에 울릉도를 '우릉도'로 부르고 울릉도를 고려의 섬으로 알고 있었다. 다음 기록이 이것을 증명한다.

간코[寬弘] 원년(1004년) 고려의 우릉도 사람들이 표류해 이나바(因幡:돗토리번의 한 주))에 이르렀다. (중략) 신라 때 우르마 섬 사람들이 (표류해) 왔는데 우르마 섬은 바로 우릉도이다.

『대일본사』, 권234, 열전5, 고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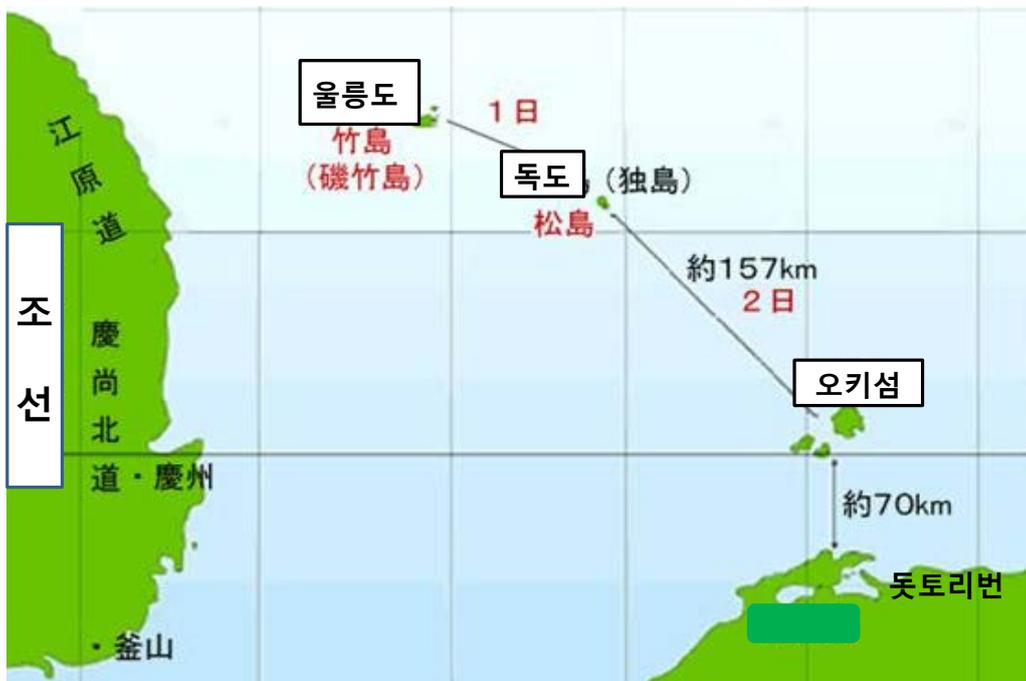


『대일본사』 표지

: 『대일본사』는 에도시대(1603-1867) 막부의 친척이었던 미토번(水戸藩)에서 편찬한 역사서이고 일본 역사의 준 공식기록이다.

1625년 경 일본의 돗토리번 어부들이 사무라이정권 에도 막부(1603-1867)로부터 '울릉도 도해면허'를 발급받아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하기 시작했다.

일본인들은 당시 울릉도를 죽도(竹島 : 일본명, 다케시마), 혹은 기죽도(磯竹島 : 일본명, 이소타케시마)로 불렀다. 그러므로 원래 죽도<다케시마>라는 명칭은 울릉도의 일본명이었고 현재 독도의 일본명인 '죽도<다케시마>'는 1905년에 독도에 부여된 이름이다.



당시 오키섬으로부터 독도까지 이틀 걸렸고 독도로부터 울릉도까지는 하루였다. 일본인들이 독도를 송도(松島 : 일본명, 마쓰시마)라고 불렀다.

2. '울릉도(죽도) 도해면허'는 외국으로 갈 때 내주는 면허다

울릉도를 왕래한 일본의 가문은 오야(大谷)와 무라카와(村川) 두 가문이었고 그들은 매년 번갈아 울릉도로 도해했다.

그런데 '울릉도 도해면허'는 일본인이 외국으로 갈 때 내주는 면허였다. 왜냐하면 17세기 초 일본이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.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.

(1) 1614년 조선의 동래부와 대마번은 조선영토인 울릉도에 대한 일본인의 도항, 입거는 금지사항임을 확인했다. (독도논문번역선Ⅱ, 2005 : p.26)

(2) 1620년,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인 와시자카 요자에몬 부자가 에도막부의 명령을 받은 대마번에 의해 체포되었다. (상게서)

(3) 1637년, 무라카와 가문이 울릉도 도해 후에 한반도로 표착했을 때 부산 왜관에 체류해 있던 대마번 관리가 일본인의 울릉도 도해는 '공식 금지사항'이라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.(상게서)

즉 17세기 초 에도막부와 대마번은 울릉도가 조선영토임을 잘 알고 있었다.

일본은 일본 배들이 일본의 이도(離島 : 떨어져 있는 섬)로 갈 때 내주는 종류 의 면허가 '울릉도도해면허'라고 주장한다. 그것은 일본이 울릉도자체를 처음부터 일본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.

그러나 일본은 '울릉도도해면허' 외의 다른 이도(離島)행 도해면허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.

한편 에도막부가 낸 '울릉도도해면허'는 주인장(朱印狀)이었다. 주인장이란 일본 배가 외국으로 갈 때 에도막부가 내준 도해면허증이었다.

이 사실은 에도막부가 울릉도를 조선영토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.

1667년 이즈모국(出雲國) 관리였던 사이토 호센이 쓴 공문서 <은주시청합기(隱州視聽合紀)>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.

'또 호키국의 대상(大商)인 무라카와라는 민간인이 관에서 주인(朱印)을 하사받아 대선(大船)을 준비하고 이소타케시마(磯竹嶋=울릉도)로 건너갔다.'

(※) 주인(朱印) : 일본에서 외국으로 가는 해외도해면허. 빨간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주인(朱印)이라 했다.

(4) 조선과 일본 간 국교는 단절되지 않았다.

일본은 1635년에 에도 막부가 쇄국령을 내렸는데도 돛토리번의 배가 울릉도로 도해했기 때문에 '울릉도도해면허'는 외국으로 가는 주인(朱印)이 아니라 일본의 떨어져 있는 섬으로 갈 때 내주는 도해면허였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당시 조선은 일본의 쇄국령 대상이 아니었다. 당시 에도 막부와 정식 국교를 가진 나라는 조선뿐이었다. 17세기 초기 조선은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(=에도 막부)와 수교해 19세기 중반까지 조선통신사 등으로 정식 국교를 맺고 있었다. 그러므로 울릉도에 가는 배도 쇄국령의 대상이 아니었다. 이것은 초보적인 지식에 속한다.